



## ☞ 정책동향 ☜

KOVIA

### 연구중심 지방대 10곳 육성, 기술인력 양성 초점

정부는 지방의 과학기술 및 이공계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중요 산업거점의 인근 지방대학 10여개를 연구중심대학으로 집중지원, 육성하기로 했다.

이들 연구중심대는 산업체가 요구하는 커리큘럼으로 운영되며 산학연 체제를 바탕으로 지방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게 된다. 인수위는 연구중심 지방대학의 선정방법 육성 등 주요 추진내용을 대학생들의 공모 등을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 올 벤처펀드 1500억 규모 조성

중소기업청은 20일 '2003년 창업투자조합 출자금 운용계획'을 확정·공고하고 본격적으로 출자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출자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중기청은 올해 창투자조합에 총 500억원 규모의 재정자금을 투입, 이를 통해 총 1500억원 규모의 벤처투자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이 가운데 500억원을 창투자조합출자사업에 우선 배정하는 한편 유한회사형 벤처투자조합 및 모태펀드, 세컨더리펀드 등에 대한 예산집행 결과를 감안해 추가출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기업과 지방 및 여성기업, 나노기술기업 등 전문투자조합에 우선 출자하고 연간 창투자조합 결성 수요를 파악,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중기청은 올해 출자조합부터 수탁은행을 통한 자산 운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출자조합 운용의 투

명성과 신뢰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한편 중기청은 오는 3월 20일까지 출자 신청을 접수, 4월 22일 까지 출자 대상 및 출자 비율을 발표한 후 본격적인 투자조합 결성에 들어갈 방침이다.

### 정통부, 임베디드 S/W에 5년간 800억 투입

정보통신부가 앞으로 5년간 총 800억원을 투입,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베디드 S/W 산업육성 계획은 IT 기술을 각종 정보화사업에 적용하여 교통, 방재, 환경, 의료 등 사회 전 분야로 확대시켜 사회인프라 전체의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계획에는 임베디드 S/W를 산업 인프라로 집중 육성하여 S/W산업 자체는 물론 금융, 자동차 등 기존 전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정통부측은 이번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그동안 제품마진의 절반이상이 로얄티로 지불되던 국내 IT 산업의 수익구조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통부가 발표한 '임베디드 S/W 산업육성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임베디드 S/W를 차세대 전략사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5년간 총 800억원을 투자하여 산업기반 조성, 기술개발·표준화, 서비스 활성화 등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통부는 이번 계획이 완료되는 2007년경에는 15조 1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4만 3000명의 고용창출효과, 28억불의 수출 증대효과 등 국가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 문화콘텐츠산업도 벤처기업 혜택

문화콘텐츠분야에서 우수한 제작력과 사업성을 갖추면 벤처기업으로 지정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원장 서병문)은 지난달 24일부터 관련 업무를 개시했다.

진흥원은 애니메이션, 캐릭터, 만화, 음악, 공연, 방송영상, 모바일·인터넷콘텐츠, 가상현실(VR), 3D 그래픽 등 문화콘텐츠의 제작과 기술·유통·서비스 분야의 업체들에 대해 벤처기업 확인평가를 하게 된다. 기존의 벤처기업은 해당 신청업체가 보유하거나 개발하고 있는 기술력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문화콘텐츠진흥원이 실시할 벤처기업 확인평가는 문화콘텐츠의 제작력을 위주로 평가하게 된다.

### BT벤처 육성위해 바이오 의약품 품목허가 쉬워져

앞으로는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가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영순)은 바이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그동안 안 동시 취득해야 했던 의약품 제조업과 품목허가권을 분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렇게 될 경우 바이오벤처기업들은 막대한 비용이 드는 의약품 제조와 관계없이 품목허가권을 취득할 수 있어 적은 자금으로 짧은 기간에 제품을 개발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바이오 산업계가 공동으로 활용해 평가자료 준비과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바이오의약품 연구지원센터(가칭)' 설립도 추진기로 했다. 이외에 식약청은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브레인 풀을 활용해 생명공학분야 연구성과가 신속히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한국 30년간 R&D 투자 연평균 22.4% 증가

우리나라의 연구개발(R&D) 투자는 1971년부터 2001년까지 30년 동안 연평균 22.4% 늘어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규모면에서는 선진국과의 차이가 더욱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19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허영섭)가 최근 발간한 '2002/2003년판 산업기술주요통계요람'에 따르면 정부와 기업을 포

함한 우리나라의 R&D 총투자는 30년 동안 연평균 22.4%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지난 70년대 미국 대비 920분의 1 수준에 머물렀던 우리나라의 R&D투자는 2001년 22분의 1수준으로 따라 붙었다. 그러나 투자 규모면에서는 미국과의 격차가 지난 71년의 266억달러에서 2001년에는 2531억달러로 벌어졌고 일본과의 격차도 71년 38억달러에서 2001년엔 1298억달러로 확대됐다.

### 중소·벤처 산학협력 다양해진다

대학 연구팀과 기술을 개발, 이를 상용화하거나 대학 시장을 겨냥해 학생용 버전으로 상품을 출시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산학협력 모델이 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이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한 상품개발을 위해 대학 연구팀 등 외부 두뇌 활용에 적극 나서면서 이를 상용화한 제품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대학 연구팀과의 공조로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고 개발과정에 참여했던 연구원을 장기적으로 직원으로도 채용하는 등의 산학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개 체험이벤트를 벌이거나 아예 학생용 버전으로 제품을 출시, 호응을 얻는 등 다양한 형태의 산학협력 모델이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품개발이나 사업모델 등 기업의 핵심분야를 외부에서 아웃소싱하는 것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특히 기술연구 부문에 집중적인 투자를 할 수 없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비용절감 효과와 함께 제품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윈·윈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 日연구팀, 量子 컴퓨터 기초 회로 개발

일본 NEC와 이화학 연구소는 미래의 초고속 계산기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양자 컴퓨터의 기초 회로를 공동 개발했다.

슈퍼 컴퓨터로 수십억년이 걸리는 계산을 수초만에 헤치우는 양자 컴퓨터의 원리를 확인할 수 있는 회로 개발에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자 컴퓨터가 실현될 경우 신약의 효과나 신재료 기능을 실제로 만들기 전에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실현 시기는 수십년 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